

## 지구단위계획의 논의에서 드러나는 건축과 도시의 간극

### Rift Between Architecture and the City Revealed in Discussions on Urban Planning

김상길 / (주)에이텍종합건축사사무소  
by Kim Sang-Gil

우리의 도시는 실로 짧은 기간에 폭발적으로 커져왔다. 이러한 우리의 도시를 수년간만 떠나 있다가 돌아오는 사람들은 다들 놀란다. 처음에는 단기간에 어떻게 이처럼 큰 발전을 이룰 수 있었을까 놀라고 그리고는 이내 어찌면 모두 이렇게 똑같은 모습으로 바뀔 수 있을까 의아해 한다. 경제적인 필요에 의해서 숨 가쁘게 짓고 또 지어서 더 이상 지을 땅이 없을 정도로 우리의 건축은 바쁘게 이루어져왔다. 건축가들은 끝없이 채워져 가는 건물들을 보면서 두 가지 걱정을 하고 있다. 첫째는 저렇게 다 채워지고 나면 과연 내가 설계할 땅이 남아날까 걱정하고, 둘째는 이러한 건설의 프로세스로부터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는 가이다. 거의 다 채워진 우리의 도시를 보고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반성하며 새로운 방법과 제도를 만들어 내고 있다.

우리의 도시에서 아파트는 상당히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다. 우리의 도시인은 대다수가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 부유층이나 서민층이나 그 평수에서 혹은 장소에서 조금 다를 뿐 겉으로 드러나는 건물의 형태는 별 차이가 없다. 우리의 아파트는 가장 기능적이고 반 브르쥬아적이어서 아주 싼값에 수많은 도시인들에게 주거공간을 제공했다. 그리고 발달된 교통수단은 이러한 아파트 단지와 직장, 학교, 백화점까지 효율적으로 연결하였다. 1929년에 개최된 제2회 근대건축국제회의(CIAM)에서 근대건축을 대표하는 건축가들은 서민에게 주거공간을 대량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1인당 최소 주거면적을 설정하고 여러 가지 실천적 방안을 논의했는데, 바로 우리의 도시가 그 규범을 가장 모범적으로 따르는 전형적인 모습이 됐다. 르 꼬르뷔지에가 주장했던 기능적 도시의 모습도 바로 우리의 도시에서 재현된 것이다. 그러나 거장 르 꼬르뷔지에의 주장은 이 제안을 발표한지 불과 20년이 채 지나지 않아 바로 유럽에서부터 젊은 건축가 그룹에 의해서 거부되었다. 이때부터 대부분의 현대 건축가들은 그러한 기능적 모더니스트그룹에 속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안간힘을 써왔다. 그런데 우리의 도시에서는 아직까지도 그 기능적인 주택들이 모든 건물들 중에서 가장 왕성하게 지워지고 가장 잘 팔리는 건축물이다.

우리의 도시에 사는 도시인들은 성격이 실용적이고 담백해서 웬만한 부자가 아니면 닭장같은 아파트에서 만족하며 살고 있다. 내부공간이 불편하지만 않으면 걸모습은 노출 콘크리트에 수성 페인트를 칠한 건물이 자신의 체면이나 권위에 아무런 누가 되지 않는다. 다만 남향이 아니면 참을 수가 없다. 돈이 모자라서 할 수 없는 경우에만 동향이나 서향집에 들어간다. 우리도시의 아파트는 북향집은 절대 없다. 대한주택공사에서 아파트 현상설계공모를 할 때 동향이나 서향집이 전체 세대수에 10%를 넘으면 그 비율만큼 평가점수에서 감점된다. 우리의 도시에서는 동네 이름은 아파트를 공사한 건설회사의 이름에 따라 불려진다. 현대1차, 우성3차 등. 그 안의 각 동들은 건물의 형태나 건축적 성격으로는 도저히 서로를 구분할 수 없어서 숫자로 각 집들을 구분한다. 그래도 우리의 도시에 지어지는 아파트들은 항상 잘 팔리기 때문에 시행자(자본가)에게 엄청난 이윤을 보장해 준다. 더 지을 땅이 없는 것이 한이다. 웬만큼 세월이 흘러서 사람들이 기억할 만한 아파트들은 다시 짓자고 부추긴다. 다시 지으면 집주인도 돈벌고 건설사도 돈버는 소위 윈윈의 상황이 되는 것이다. 건축가는 기본설계만 하면 다음 설계는 할 필요도 없다. 다른 단지에 썼던 도면을 복사만 하면 끝이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건축가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그러나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도시에 대한 논의로부터 시작되고 있으며, 지구단위계획이 그러한 제안 중에 가장 중심에 있다. 도시의 공공성 확보와 건축형식에 있어서 물개성적 도시풍경의 극복 방안 등이 주요 내용이다.

우리의 도시건축이 무미건조한 원인이 건축의 양식의 문제인가. 우리가 근대건축의 거장들에게 보내는 찬사는 그들의 건축의 저변에 깔려있는 치열한 사고의 밀도와 끊임없이 드러나는 천재성과 완성도 높은 작품 때문이다. 새로운 양식을 제시해서 거기로부터 우리의 건축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건축가는 하나도 없다. 우리 도시의 모습이 이 모양이 된 것은 근대 기능주의적 건축양식을 만들어 낸 그들 때문이 아니고 싼 집을 대량으로 지어야 하는 우리의 현실과 그것에 편승한 건축가와 그것을 너무나 잘 받아주고 잘 살아주고 있는 우리 도시인의 문화수준에 기인한 것이다. 미스 반 데 로에의 판스위스 주택을 생각하면 지금도 전율을 느낄 만큼 내 가슴 깊숙이 박혀있다. 그 집은 안도 다다오의 표현에 의하면 폭력성과 광기를 간직하고 있는 집이라고 하였다. 그 집은 산다는 것 자체가 경이라고 해야만 한다. 건축의 새로운 지평을 연 그의 힘겨운 사고의 궤적은 세계의 모든 건축가에게 엄청난 감동을 선사

했다. 그러나 필립 존슨의 글래스 하우스를 보면서 많은 건축가들은 코웃음을 쳤다. 미스를 받아들이는 방식이 적어도 필립과 같아서는 안된다는 것을 건축가들은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근대건축은 도도하게 흘러가는 건축의 역사 안에 가장 지적이고 가장 열정적인 한 흐름이었을 뿐이다. 근대건축이 우리의 도시를 책임질 아무런 근거나 이유를 갖고 있지 않은 것이다.

우리는 다원화를 미덕으로 여기는 현대에 살고 있다. 엄청나게 넘쳐나는 정보와 극단으로 치닫는 모든 분야의 현상들은 우리를 더 이상 안정적인 패러다임에 묶어 놓지 않는다. 현대건축은 전통건축 혹은 과거의 건축과 아무런 의미론적 연속성을 갖지 않는다. 이러한 불연속성을 없애기 위해 노스텔저들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서양의 고전건축이나 지중해 주변의 오밀조밀한 이태리의 마을을 본 딸 수도 없는 것이고, 유형론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우리의 도시와 건축을 분석하여 건축의 타이포로지를 찾아낸들 어느 건축가가 그것에 집착하여 자신의 건축을 그것에 맞추려 하겠는가. 우리 도시의 물개성적인 풍경은 그것들을 공통적으로 묶는 건축양식의 부재 때문이 아니라 건축가의 치밀한 사고와 풍부한 아이디어의 부재와 그것을 원하지 않는 건축주에 기인한다. 오사카의 서민적인 전통가옥들이 즐비하게 들어서 있는 마을에 연면적 19.6평의 스미요시 나가야라는 주택을 설계한 안도 다다오는 그 주택에 담겨있는 치열한 사고를 인정한 전 세계의 수많은 건축가들로부터 주목받는 건축가가 됐다. 이 집의 걸로 드러나는 파사드는 폭3.6m 높이6.3m의 노출콘크리트 면에 외딴문 현관 하나 뿐이다. 주변의 벽돌벽 기와지붕과는 혹은 일본건축의 전통적 문화적 논리와 아무런 연속성이 없다. 그러해도 지금은 세계가 인정하는 전형적인 일본건축이 되어있다. 안도가 우주라고 표현한 증정은 이 집에 대한 사고의 집약체이다. 방에서 화장실을 갈 때 비오는 날에는 우산을 쓰고 통과해야 하는 이 증정이 일본의 주택의 유형론적 원리, 혹은 일본적인 전통이나 문화로 설명될 수 있는가.

우리의 도시에 담겨있는 역사와 문화는 보호되고 이어져야 되는 대상으로 여기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는 그것을 취사선택한다. 조선총독부 건물을 국립박물관으로 쓰다가 어느 날 해체시켜 버렸다. 정치적 논리이든 문화적 논리이든 항상 옛것을 모두 다 보호하지는 않는 것이다. 다만 사회적 합의에 의하여 진실로 그것이 보존되고 가꾸어져야할 대상이라면, 그 방법에 있어서 주변이 그것을 향해 존경심을 표현하고

시각적으로, 공간적으로 양보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다. 건축가가 그것을 건축적으로 닮은 건축을 추구하는 것이 그것을 보존하고 이어가는 방법인가. 오히려 자신의 건축 안에 그것에 대한 존경과 의식을 어떻게 담고 있는가가 그 시대를 담아내는 방법일 것이다. 건물에는 건축가가 그 주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으며, 이 집에 살 사람은 어떻게 이웃과 대화하고, 비와 눈 따듯한 햇볕과 바람, 달과 별과 경관을 어떻게 끌어낼 것인가의 고민과 의식이 포함되어 있다. 그것이 얼마나 치열하고 완벽한가에 따라 그 건축의 수준이 나타날 뿐이다. 우리 도시에서의 문제는 지어지는 건물이 너무나 개성적이거나 너무나 몰개성적인 건축이어서 주변과 조화되지 못하는 건축이라고 하는 형태와 양식의 문제 이전에 건축의 결과 생겨나는 장소에 대한 구체적인 고려가 배제된 결과이며, 너무 크게 지어야만 하는 그래서 아무런 장소적 배려가 가능하지 않은 경제적, 사회적 여건이 더 앞선 문제이다. 이 때 바로 지구단위계획과 같은 사회적 합의에 의한 규제가 필요한 것이다.

우리의 도시가 좋은 모습을 되찾기 위해서는 거시적인 택지의 문제와 미시적인 지구단위의 문제를 같이 고려하여야 한다. 경제의 발전과 인구증가에 따라 건축의 수요가 아직까지도 제어되기 어려울 정도로 공급을 앞서간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아름답고 넉넉한 도시를 만들 것인가, 아니면 주변의 아름다운 전원을 보존하고 최대한 아낄 것인가를 선택하여야만 한다. 도시를 쾌적하게 유지하려면 그린벨트나 논 경지, 그리고 아름다운 산야에 집을 지어야만 하는데 이때야말로 지역별 장소별 건축규정을 철저히 연구하고 합의하여 건축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불도저를 사용하지 않고 경사면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용적률을 적용하여야 하는가 혹은 기존의 수목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건폐율을 적용하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일률적인 기준으로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가 없다. 만일 주변의 전원을 보존하려 한다면 도시의 허용 밀도를 훨씬 높여야만 할 것이다. 그리고 이 또한 지역별 지구별 연구를 바탕으로 치밀하고 철저한 규정이 필요하다. 밀도가 높아질수록 환경이 불리해지기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거시적인 합의가 좋은 건축 좋은 도시의 선행조건이 된다. 예컨대 택지는 텅없이 모자란데 용적률만 낮추어서는 엄청난 저항을 초래할 것이며, 부족한 용적률은 지하에서든 편법으로든 찾아내려 할 것이다. 왜냐하면 팔리는 것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각론에 있어서 전문 분야별 전문가의 역할이 보장되어야만 성공의 가능성이 보장될 것이다. 가령 어떤 지구를 개발하고자 할 때 어느 정도 비우고 어디

를 채울 것인가에 대한 기준은 건축보다는 도시적 관점에서 과학적이고 치밀한 논리에 의해서 논의되어야 하며, 어떠한 건축을 만들 것인가는 건축가의 통찰력과 열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근자에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논의에서 건축가의 아이디어나 열정적인 상상력의 중요성은 어디에서도 발견하기 어렵다.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또한 사회적인(건축주를 포함한) 요구와 평가가 있어야만 건축가는 치열하게 노력하고 찾아낸다. 그런데 그것을 요구하고 장려하는 대목은 찾아보기 어렵다. 여기에 도시와 건축사이의 간극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 틈 역시 건축가의 노력으로 메꿔져야 하는 대상이다.

이 논의는 최근 여러 건축저널에 소개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대담과 논문들을 읽고 이에 대해 실무건축가로서의 생각을 정리한 것이다. 건축에 대한 반성은 건축가에 의해서 더 많이 고민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대안 역시 건축가의 생각이 중요하다. 더 많은 생각과 검토를 거쳐 다시 정리하고자 하며, 여러 건축가들의 적극적인 토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